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0년 4월 2호

◆ 번역 기사

1. 다롄시(大连市) 2035년까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건설 계획
大连市计划到2035年建成东北亚海洋中心城市
2. 광둥성(广东省) 문화와 관광 융합으로 도서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广东推进文旅深度融合 发展高质量海岛经济
3. 하이난성(海南), '해상환경위생(海上环卫)제도' 수립으로 해양쓰레기를 일상 환경청소 범위로 포함
海南：建立海上环卫制度
4. 「광둥성 해안선 점용과 보충 제도(占补) 실시의견(시범 시행)」에 대해 의견 수렴
《广东省海岸线使用占补制度实施意见（试行）》公开征求意见

◆ 기타 동향

5. 동해국 「2020년 해양 조기경보 모니터링 업무방안」 발표
东海局印发《2020年东海区海洋预警监测工作方案》
http://ocean.china.com.cn/2020-04/14/content_75930474.htm
6. 「저장성 생태연안대 건설 방안」 발표
《浙江省生态海岸带建设方案》印发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4-21/75039.html>
7. 산둥성 해수담수화와 종합이용 산업의 발전 대대적 추진
山东省大力推进海水淡化与综合利用产业发展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4-21/75040.html>
8. 중국 제36차 남극과학탐사 성공적 마침, '쉐룽(雪龙)호'와 '쉐룽2호' 쇄빙선 최초 합동 탐사 실시
中国第36次南极科考首次“双龙探极”圆满完成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4-25/75132.html>
9. 산둥성 르자오(日照) 「해양신흥산업발전 지지에 관한 의견」 발표
山东日照出台《意见》支持海洋新兴产业发展
<http://www.hellosea.net/Economics/1/75174.html>
10. 중국 남극 장성기지(长城站)와 중산기지(中山站)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폐쇄 관리 실시
中国南极长城站和中山站实施封闭管理，防控新冠疫情
<https://mp.weixin.qq.com/s/9kAaUcx4SHdPwqfJvOOliw>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세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다롄시(大连市), 2035년까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건설 계획

- 중국 다롄시는 최근 「다롄시 해양중심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약칭)을 내놓았으며, 2035년까지 동북아 해양중심 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다롄시가 「지도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발전추세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동북지역 진흥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것임
 - 다롄시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우위조건이 돋보임. 다롄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외무역 종합 통상구임
 - 갯벌과 도서 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어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줌
 - 다롄시의 해양산업 기반이 든든함. 연해관광업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해양플랜트와 조선업은 중국 국내에서 선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다롄시의 해양중심도시 건설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임
 - 제1단계: 2025년까지 중국 북방지역의 중요한 해양중심도시로 건설됨. 해양경제 생산액은 2018년보다 2배 증가 목표임
 - 제2단계: 2035년까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건설됨. 해양경제는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해양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 해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해양산업체계를 형성함
- 다롄시의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임무를 제시했음
 - 첫째, 동북아 국제해운센터의 능력을 제고함. 다롄시 동북아 국제해운센터와 물류센터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해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종합 서비스 환경을 개선함
 - 둘째, 현대 해양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 연해관광업을 계속 강대하게 육성하고 해양어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고급선박과 해양플랜트장비 제조업의 패턴전환을 촉진함. 또한, 해양바이오의약과 신소재 산업의 혁신발전을 활성화시키고 해양신에너지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셋째, 해양과학기술 혁신 단지 건설.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보완하고 중점 해양과학기술의 개발을 강화하며, 기업의 독자 혁신능력을 제공하여 해양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집적시킴
 - 넷째, 해양생태문명 건설 강화. 관련 해양계획체계를 보완하고, 총량통제와 레드라인 통제로 해양오염에 대한 종합 방제 및 생태복원을 실시함
 - 다섯째, 해양종합관리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함. 국가전략에 따라 ‘일대일로’ 건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여 해양경제의 개방과 협력을 활성화시킴

(출처 : 大观新闻, 2020. 4. 10.)

<http://www.hellosea.net/News/11/2020-04-10/74808.html>

광둥성(广东省) 문화와 관광 융합으로 도시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 최근 광둥성은 「광둥성 도서관광 발전 종합계획(2017년~2030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해관광과 도서관광의 시장을 심층적으로 개척하고 있음
 - 광둥성에서 1,963개 도서가 있으며, 중국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광둥성은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고 문화와 관광 간의 융합으로 '1+1 > 2'의 효과를 실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광둥성 도서경제의 고품질 발전 및 연해 경제벨트의 건설을 촉진할 것임
- 도서관광 시장은 밝은 발전 전망 보임
 - 중국 14개 연해도시의 관광객 수는 2015년 2.8억 명에서 2018년 3.7억 명으로 증가했음. 관광 수익은 2015년 7,000억 위안에서 2018년의 10,000억 위안으로 증가했음
 - 해양경제발전보고에 따르면, 2018년 광둥성 연해관광 생산액은 광둥성 해양산업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었음
- 도서관광의 개방 효과가 전체적으로 뚜렷
 - 관광구역의 구축과 종합 개발로 도서관광을 활성화시킴. 주하이(珠海)도서군은 형친(橫琴)국제관광섬 및 완산(萬山)군도의 관광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양장(阳江) 하이링섬(海陵島)은 따자오만(大角灣) 관광구와 광둥 해상실크로드 박물관을 연계시켰음. 장먼(江門) 완다오(川島)은 비교적 완비된 관광산업 체계를 구축했음
 - 산터우(汕頭) 난아오다오(南澳島)에서는 2015년에 난아오대교(南澳大橋)가 정식으로 개통되어, 관광업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음. 2015년에 난아오다오에 진입해 관광하는 인수는 455.6만 명에 달했고 전년 동기대비 383% 증가했음
- 도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이용 강화
 - 2015년과 2019년에 광둥성 정부가 공포한 2차례의 성급 문화재 보호구에서 여러 개 해상실크로드 관련 중요한 유적지를 포함시킴
 - 일부 유적지는 도서에 있는데, 특히 중국 남송시대의 상선인 '남해(南海) I 호'와 명나라 시대의 '난아오(南澳) I 호'선박을 발견하는 해역은 광둥성 제1차 수중문화유산보호구로 지정했음
- 다음 단계에서 광둥성은 세계 최고의 도서 레저관광 클러스터 및 아시아 해양미식관광 목적지로 구축하고 해상실크로드 관광의 핵심 문화 및 해양관광 강성으로 건설할 계획임
 - 도서관광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여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서관광 중점 목적지를 구축하도록 함
 - 또한, 도서관광시장의 급속발전과 품질제고를 추진하고 광둥성의 도서경제 고품질 발전 및 연해경제벨트 구축에 힘을 기울임

(출처 : 广东省文化和旅游厅, 2020. 4. 17.)

https://www.mct.gov.cn/whzx/qgwhxxlb/gd/202004/t20200417_852588.htm

「광둥성(广东省) 해안선 점용과 보충(占补) 제도 실시의견(시범 시행)」에 대해 의견 수렴

- 해안선에 대한 보호, 이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 통제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광둥성 자연자원청(自然资源厅)은 「광둥성 해안선 점용과 보충(占补) 제도 실시의견(시범 시행)」(이하 「의견」으로 약칭)의 의견 수렴 안을 발표했다
- 동 「의견」은 해안선 점용과 보충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제시했음
 - 대륙 자연해안선 보유율이 35%이나 35%를 미치지 않은 지급(地级)이상 시에서 사업건설을 위해 대륙 해안선이나 도서 해안선(이하 모두 ‘해안선’으로 약칭)을 사용할 경우, 자연해안선을 점용하는 1:1.5의 비례, 인공해안선을 점용하는 1:0.8의 비례로 대체 해안선을 복원시켜야 함. 이를 통해 자연형태와 생태기능을 지닌 해안선을 형성하도록 함
 - 이와 동시에, 해안선 유효이용 제도를 수립하고 해안선 가치에 대한 평가기술 규범을 제정하여 개발과 이용 가능한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시함
- 동 「의견」은 해안선 복원과 정돈에 대해서는 다양화한 해안선 점용·보충 모델을 이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음
 - 주로 사업 대상구역 복원, 시내 복원과 타지 복원 등 모델을 포함함
 - ‘복원하는 자가 수익하고 사용하는 자가 복원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 여러 방식으로 해안선 복원에 사회자금을 투입시키도록 함
 - 비영리 공공 인프라 시설과 재해 감소·예방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해안선을 점용할 경우 연해 지급이상 시정부가 이를 지역 해안선 정돈·복원 계획 내로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 광둥성의 해안선 정돈·복원 계획 내로 포함시켜도 됨
- 동 「의견」은 해안선에 대한 정돈과 복원은 해안선 정돈·복원 기술표준 및 관련 요구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돈과 복원 사업은 생태보호 레드라인 관제의 요구와 안전 보장의 전제로 현지의 기후, 수문(水文), 지모와 토양 등 자연조건에 따라 복원구역을 선정함
 - 또한, 구역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생태복원 기술을 사용함. 파손이 심각하거나 안전 위험성이 존재하는 해안선과 자연경관과 생태경관이 필요한 해안선을 우선으로 복원시킴

(출처 : 海洋知圈, 2020. 4. 25.)

<https://mp.weixin.qq.com/s/fFOmSldQkgGtLVMH3OIJhQ>

하이난성(海南省), '해양환경위생(海洋环卫)제도' 수립으로 해양쓰레기를 일상 환경청소 범위로 포함

■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하이난성의 항만개발, 어업과 요트관광업 등도 신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안가, 연안, 근해 해면 등에 대한 쓰레기 정돈이 시급한 상황임. 최근 하이난성은 「하이난성 해상환경위생제도 업무0202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 이 통지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이난성은 하이커우(海口), 쑤아(三亚)와 양푸(洋浦)경제개발구를 시험지점으로 선정하여 해상환경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음
- 2023년까지 하이난성에서 해상환경 위생 업무에 대한 정상화와 규범화 관리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해양개발 가속화에 따른 쓰레기 처리량 급증

- 하이난성 해안선에서 개발 가능한 어항은 약 68곳으로 어선 수량은 20,000척을 넘었음. 일상 작업 과정에서 어선이 생산한 쓰레기는 날로 증가되므로 해안선과 근해해역에 대한 쓰레기 오염 방제는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관광 성수기가 되면 관광객이 급증되어 해안가에서 플라스틱과 포말형 쓰레기가 평소보다 많아짐
- 현재 하이난성이 실행하는 해양환경위생 제도에 따르면, 근해 갯벌과 해안선 등 구역은 이미 환경위생 청소의 범위로 포함시켰으나 근해 해면은 아직 무인관리구역에 속해 있음
- 쉬이(许毅) 하이난성 주택건설청 부청장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해상환경위생 제도를 통해 해상환경위생과 육상환경위생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했음. 또한, 연안 갯벌과 해안가뿐만 아니라 연해 항만, 부두, 하천 입해구(入海口) 등 수역의 해면도 환경위생 제도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함

■ 드론 등 과학기술 수단으로 해상 쓰레기 추적

- 해상 쓰레기가 분산될수록 청소하기 더 어려워짐. 육상에서는 구역별로 담당자가 청소하면 되는데, 수역에서는 선박운전 기술을 필요로 하며, 청소 담당자들 간의 협력도 필요함
- 하이난성의 해상 환경위생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성 원격 탐지, 드론, 영상 모니터링 등을 이용함으로써 '기계 위주, 인공 보조'의 해상 환경위생 작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 향후 환경위생 부문은 드론 등 과학기술 수단으로 해상 쓰레기에 대해 정확한 위치 추적을 실시할 것이며, 해면의 환경위생 작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임

■ 하이난성의 해상환경위생 제도 모델 구축

- 쉬이는 하이난성은 해상위생제도의 수립으로 해안가, 하천 입해구와 근해 해면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돈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깨끗한 해안가와 청정한 해면을 조성하여 하이난성의 해양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나아가 중국 전국의 해상환경위생 제도의 수립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함

- 환경위생 작업 범위에 관하여, 하이난성은 해역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는 연안 간조선 바다 쪽 200m, 하천 입해구(入海口), 연해 항만, 부두 등 수역의 해면을 포함하며, 연안 갯벌도 포함시켰음. 작업 표준에 있어는 해상쓰레기 인양, 연안 갯벌 쓰레기 작업에 대해 모두 다른 작업 요구를 제시했음
- 또한, 해상쓰레기 청소의 어려움과 구역은 육상 쓰레기와 다르기 때문에 관련 환경위생 기업은 다른 청소 평가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출처 : 海南日报, 2020. 4. 19.)

<http://zjt.hainan.gov.cn/szjt/zwhjws/202004/a6b2c5eee4854751833850c753ee55ca.shtml>